

불심시집 <33>

뜬 구름에 견준 몸

天真面目是何文 (천진면목시하문) 천진면목의 모습 무엇으로 표현해
 性自明明露見聞 (성자명명로견문) 본성은 스스로 총명해 보고 들을 드러나
 覺察尋常元有路 (각찰尋常元有路) 심상함 깨달고 살림 원래 깊이 있지만
 眼離日用別無門 (안離日用別無門) 일상의 일 벗어남은 문이 따로 없지
 須知濕體波全水 (수지습체파전수) 물젖음의 본체 알면 파도가 모두 물이니
 黃珠珠影影異分 (황주주형형이분) 구슬 하나에 형태 그림자 구분됨 이상
 認得色空無二道 (인득색공무이도) 색·공에 두 길 없음 알면
 百年身世淨淨雲 (백년身世淨淨雲) 평생의 이 몸 뜬 구름에 견줄 수 있어
 (백년신세등운운)

이 시는 영허대사의 도화(道話)라는 시이다. 곧 진리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진리란 천진한 것이다. 천이란 자연이요, 진이란 참다움의 실상이다. 이 천진한 표현이것이 진어의 세계이다. 여기에 무슨 구멍이 있는가. 인간의 글로 대표되는 문(文)은 의도적인 구멍이다. 그러기에 때로는 진어실상과는 거리가 먼 헛된 허무할 수가 있다.

사람은 원래 총명한 것이다. 그것이 타고난 본성이다. 그러나 어리석음에 이끌려 가리워지면 보고 듣지 못하고 들음이 밝히 드러난다. 진리는 일상의 보통의 것이니 여기에서 찾을 것이기 때문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일용의 모든 사리가 바로 진리이기에 따로 길이 있어 찾아 헤맬 것이 없다. 행주와 의의 일상이 바로 길이다. 마치 물젖음의 속성이 바로 물의 본성임을 안다면 파도와 물이 물이 아니요 모두가 젖음의 승성에서 이는 각각의 형태임을 알 것이다. 구슬의 둥근 형태는 형태로서의 본체이나 비침의 자리에 따라서는 동공이 아닌 타원의 그림자가 될 수도 있고 실제보다도 크고 긴 나무 가지일 수도 있다. 그는 처지의 다름에서 오는 그림자의 다름이지 원래의 변화는 아니다. 처지의 다름은 그 처지로 이해해야 바로 처지에 따라 대응되는 변화의 기틀인 것이다. 이것이 위에서 말한 심상한 일상에 별다른 문이 없음을 이다.

온갖 사물이 있다. 없다(色·空)의 대칭으로 맞서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대칭이 대칭으로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보의 자리에 있어 있음이 전제되어 있음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뜬 구름으로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시집 '님의 침묵'의 침묵'은 70여년 동안 같은 제목으로 영문판 등 82종이 나왔다.

스님 나름대로의 맞춤법, 띄어쓰기, 조어, 방언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어의 흐름과 출판의 현주소를 알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

82종의 판본은 현대불교신문과 책방 여시아문 창간·개관 1주년을 기념, 만해사상연구회와 함께 10월 20일부터 책방 여시아문에서 전시될 계획이다.

만해스님 영정, 만해시비 사진 액자, '님의 침묵' 전문 등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여기에서 기간동안에는 '님의 침묵' 판본 수집의 의의와 과정(강사·전보삼교수)과 '님'과 '침묵'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도 열린다.

도필선 기자

만해시집 '님의 침묵' 82종

전보삼교수 수집...영문판도 3종 나와 20일부터 '책방 여시아문'서 전시예정

리 근·현대사를 이끌어 온 정신적 지주이며, 민족정서의 근간임을 대변한다.

또 만해스님의 문학과 사상을 대표하는 정신이 바로 '님'과 '침묵'이라는 것이 면면이 인식돼 왔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과서에마져 원본과 틀린 '님의 침묵'을 교육하고 있는 데 개탄, 원본에 가까운 '님의 침묵'을 복간하고 현대적으로 계승하고자 10여년간 82권의 만해시집을 수집해 온 전교수

는 "제목의 절대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집 <님의 침묵> 판본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수는 "시공을 초월해 영원히 읽혀질 <님의 침묵>의 거듭된 판본에서는 그 당시

영문판도 3종이나 간행됐다. 이 책들은 만해사상연구회 전보삼교수(신구전문대)가 수집,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천해 온 근·현대 문법표기의 문체와 거둬오는 간행에 따른 '님의 침묵'이라는 뜻의 왜곡과 굴절

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 인물의 한 시집이 80% 이상 하나의 제목으로 판본을 거듭하는 전무후무한 일로 꼽힌다.

만해스님의 <님의 침묵>이 이처럼 꾸준히 발간된 것은 우

'동심은 불심' 아동미술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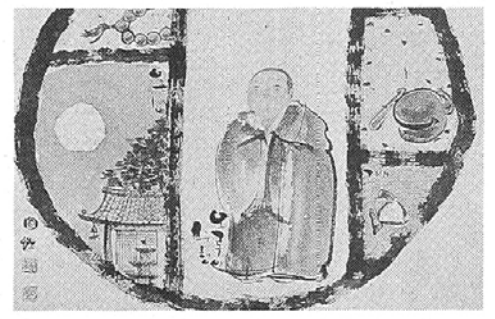
조계종, 22일 도선사서...7백여명 참가

'95 미술의 해 기념 '제3회 불교아동미술잔치'가 조계종 총무원 문화사회부 주최로 오는 22일 10시30분부터 도선사 일원(예정)에서 개최된다.

불자어린이들에게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이번 불교아동미술잔치는 국민학생은 물론 유치원생 및 미취학 아동 7백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로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도심속의 사찰에서 아동들에게 친근한 불교의 이미지를 소개하고, 창작 육구의 증진을 도모해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행사 당일에는 목동청소년회관 강사가 출연, 어린이와 함께 하는 레크리에이션을 선보인다.



원성스님 작 방벽형 구성화 '예불'.

승가대 기금마련 원성스님 개인전

승가대대학(학장 송산스님) 김포이전에 따른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원성스님(사회복지학 1) 개인전이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백상기념관에서 열린다.

전통 한지와 화선지에 동양화 물감으로 채색한 1백여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동자스님을 소재로 한 작품을 통하여 선사와 자원이 어우러진 천진 불심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인전에서는 수채화 관음도와 방벽형 구성화 의 독특한 형식의 작품을 눈여겨 볼만 하다.

이번 전시회에서 얻어진 수익금 전액을 중앙승가대 대학사이전 기금으로 회사회에 영전 원성스님은 선재이벤트와 손잡고 캐리터 상품과 달력도 제작해 선보일 계획이다.

어린이 까치마을 백일장 열려

22일 서울·경기지역 국교생 대상...용산공원서

사회복지 까치마을(총장 범진스님) 주최 '제1회 어린이 까치마을 백일장'이 오는 22일 오전 10시 용산가족공원에서 마련된다.

봉사의 참 의미를 되새겨 항상 이웃과 나눌 가지는 일을 생활화 하는 정신을 어린이 불자들에게 심어줘 부처님의 참뜻을 느끼게 한다는데 개최의 의미를 두고 있는 이번 백일장은 서울·경기지역 국민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선재이벤트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백일장 외에도 레크리에이션 및 단체대항 게임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찬탄·참회 '신곡 두편' 발표

불광마하보디합창단 11일 정기공연

불광 마하보디합창단(부지 휘자 운순자) 제1회 정기발표회가 오는 11일 오후 7시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열린다.

90여명의 마하보디 단원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광덕스님 작, 정부기교수 곡 '님은 태양위 태양' 혼자 있을 때 등 찬탄과 참회의 2곡이 신곡으로 발표된다. 또 바라바다 남성중창단, 한마음선원합창단이 친조출연해 찬불가를 연주한다.

뿐만아니라 2부에서는 정영주 문혜우 강희영 국을경씨가 출연, 오페라에서 현대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개한다.

한편 불광 마하보디합창단은 지난 92년 '보현행원승' 발표에 이어 내년 4월 18, 19일 국립대극장에서 광덕스님의 시에 박범훈교수(중앙대)가 곡을 붙인 '부모은중경' 발표회를 가질 계획이다. '부모은중경'은 <부모은중경>을 풀이 쓴 장경시를 2악장의 합창곡으로 구성한 창작국악 교성곡. (본지 21호 13면)

관소리로 듣는 '부모은중경'

정광사 개원기념...7·8일 안숙선씨 공연

<부모은중경>이 관소리로 완창된다.

방배동 정광사(주지 송암) '개원기념 명창 안숙선 관소리공연 부모은중경'이 오는 7, 8일 정광사에서 발표된다.

불교의 전통 화창의 한 유형으로 '회심곡' 등이 전해 왔으나 경전이 관소리로 개작돼 공연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8일 정광사에서 발표된다. 불교의 전통 화창의 한 유형으로 '회심곡' 등이 전해 왔으나 경전이 관소리로 개작돼 공연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 버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

2천 5백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2천2원 / 각권 값 6,500원

법구경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전2권 / 각권 값 6,500원

탄트라비전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이연희 옮김

전4권 / 각권 값 6,500원

살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를 아십니까?

이 존재들을 모른다면 지성인이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인간 정신의 가장 차원 높은 지적 유희가 바로 선(禪)입니다. 이 존재들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당신은 초월입성(超凡入聖)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조가 당신을 만난다면 그 즉시 당신의 머리를 베어버릴 것이고, 조주는 그 남은 몸통머리를 부처의 몸으로 조각할 것이며, 임제는 부처의 머리를 가져다 그 몸에 붙여줄 것이다.

임제 RINZAI

조주 JOSHU

마조 MATZU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곡 / 각권 값 5,000원